

察病要訣

吳 斗 錫

(삼대당 한약방)



手

足麻痺는 風與寒濕이요, 足膝寒冷은 命門大虛이며 五心
煩熱은 心胸方熱이로다 心肝二臟은 陽中之陰이니 常恐
其有餘하고 脾肺腎三臟은 陰中之陽이니 常恐其不足이로다

頭面은 諸陽之會요 胸膈은 二火之聚로다 頭無冷痛하고 腹無熱
痛이니 此는 大概之言也니라 面病은 全屬胃하고 眼病은 本無寒
이로다. 凡有腹痛은 通利爲上이요 諸般腰痛은 實是腎虛로다. 虛
者는 補其母하고 實者는 瀉其子로다.

其曰腎者는 有補無瀉라 心出血, 肝納血하고 肺出氣, 腎納氣로다 腑爲陽 臟爲陰이오 外
爲陽 內有陰이로다 四末屬於脾胃하고 聲音出於腎經이로다.

四關合谷 與太沖은 十二經原之所出이로다 春傷於風하면 夏爲損泄하고 夏傷於暑하면 秋
爲發疔하고 秋傷於濕하면 冬發咳嗽하고 冬傷於寒하면 春必病瘟하니라

大凡水痢는 通利爲上이로다 水失其歸에 妄行之致로다 男病先審腎經之虛實하고 女病先
問月候之調否로다 疔腫皆屬於火하고 脇痛은 屬於肝膽이로다 肺者는 臟腑之華盖요 胃者는
水穀之海로다 風者는 百病之長이요, 火者는 亡身之賊이로다

小兒 腹痛은 有積有蟲이로다. 疔腫之疾은 心神이 大虛하야 痰火侵犯之致로다. 癲狂之症
은 乃是五疔로다

濕者如水下流之狀이니 多着下焦하고 瘦人은 血虛多火하고 肥人은 血實多濕이로다 風者
는 火起炎之上이니 多着上焦로다 痒由血虛하고 燥因血小로다.

男主於氣하고 女主於血이로다 諸濕黃疸은 利小便爲上이로다. 肺癰痛於中府하고 心癰痛
於巨關이로다

肝癰痛於期門하고 腎癰痛於京門이로다 胃脘癰於中脘痛하고 腸癰腹癰은 臍中痛이로다
左右肩臂之痛은 乃針中脘爲上이로다 濕痰由中焦하고 上住之致로다

多血雖有相火之所使나 亦屬於鬱이로다. 肺爲有聲音之門戶하고 腎爲聲音之根本이로다

寒傷盛熱傷氣하고 氣傷形 痛傷중이로다. 先痛後腫은 氣傷形이요 先腫後痛은 形傷氣로다.

喜怒傷氣하고 寒熱傷形이로다 無痰不成疝이요, 無積不成癰이로다. 穀入多而氣小者는 濕屬下也요, 穀入小而氣多者는 邪在胃與肺也로다. 氣衰則身冷이요 血虛則膚硬이로다 善飲水者는 氣病이요 不飲水者는 血病이로다 無陰則厥이요 無陽則嘔로다 汗多無陽이요, 汗不多無陰이로다 欲泄其邪어든 先補氣虛로다 不可補者는 四病이니 疾病狂疾水疾脚氣로다. 積者臟病이니 不移其處로다.

自養其正이면 積自除也니라

熱鬱成痰하고 痰鬱成癖이라 血鬱性가하고 食鬱成이로다 濕生痰熱生風하고 痰生熱風生蟲이로다 肝之積曰肥氣니 在左脇下하고 心之積曰腹梁이니 起臍上至心下로다. 脾之積은 肥氣니 在胃脘積右로다 腎之積曰 奔豚이니 發小腹至心下로다 在左胃血積이요, 在右爲食積이로다. 肥與현癖은 胸膈之病이로다 積與聚病은 두腹間之病이로다 飲食聚積變化成蟲이라. 濕熱이 相交에 民病其痒이로다 消渴之症은 豫防癰疽로다 飲養陽氣하고 食養陰氣로다. 走馬鬻者는 因傷寒하야 隨痰結處而成膿하고 表主尺而必生이라

陽水者는 外感也라 上體先浮하니 發汗 爲主로다 陰水者 內傷也라. 下體先浮하니 二便爲主로다

諸泄風冷은 溫中爲主로다 赤白痢症은 利中爲務로다 飲發心中에 氣病則麻하고 浮腫이 於下에 血病則痛이로다 惡寒非寒이라 明是熱症이요, 惡熱非熱이라 明是虛症이요, 中風則能食하고 上寒則不食이라, 上虛則眩하고 下虛則厥이로다. 心肺損而色閉하고 肝腎損而成 위로다 陽受氣於四末하고 陰受氣於五臟이로다. 暴喜傷心則 氣緩而心不出血故로 肝無所受하고 暴怒傷肝 則氣逆而肝不納血故로 血無所歸로다 又有役勞過度하야 陰火沸騰則血從火起故로 錯經妄行이라

각血唾血은 出於腎하고 咳血嗽血은 出於肝이로다

痰者는 黑色이요, 厥者는 赤色이로다 先吐痰後見血은 是爲積熱이라 宜用 清肺湯하고 先吐血後見痰은 是胃陰虛라 降火湯하라 一切血痛은 宜用四物湯하고 一切痰痛은 宜用二陳湯하라 欠爲氣乏이라 竝爲氣通이라 寢寒增風은 腎實之致로다 汗者는 血之并名이요 痰者는 津液之異名이라 腎冷則多唾하고 腎熱則無唾로다 奪氣者는 無汗하고 奪汗者는 無血이로다.

涎者脾液이라 唾出牙齒로다 涎者는 因飲水不散而爲病하고 痰者는 因水炎熏灼而成痰이로다 伏於包絡하야 隨氣發動者는 痰也요, 聚於脾胃하야 上溢口角者는 涎也로다 五勞에 心勞는 血損하고 肝勞는 神損이로다 脾勞는 食損하고 肺勞는 氣損이로다. 腎勞는 精損이니

□ 학 술

所爲 當詳이라.

脾胃有病하면 四肢不用이라 肺心에 有邪하면 其氣流於兩關하고 脾之有邪에 其氣流於兩주이로다.

小腸에 有熱하면 必生其痛하고 大腸에 有熱하면 必生便血이로다 傷風臟毒은 乃是血痔로다 傷風是動血이라, 色清而鮮이로다 傷風은 以散風行濕으로 爲主하고 臟毒은 以清血冷血로 爲先이라

風非大汗則不除하고 濕病大汗則成症이로다 古之痛痺를 今爲痛風이로다 高顛之上에 唯風可到라 諸嘔吐逆은 皆屬於火하나라

寒中은 終爲熱이요 熱中은 終爲寒이로다 虛損與危病久病은 不宜針用이로다

痔漏는 즉위痔요 脫肛은 乃傷痔로다 前陰諸症은 屬於陰하고 小腸은 亦屬厥陰經이로다 精滑은 專屬濕熱이라. 濕痰滲爲遺積하나라 乾咳無痰은 是鬱嗽하고 腎小枯而火盛之致로다 濕在心經을 謂之痰熱이요, 濕在肝經을 謂之風痰이라 嗽는 謂無痰而有聲이라 肺氣傷而無清이요, 咳는 有痰而無聲이라 脾濕動而爲痰이로다 五臟이 不和則七竅不通하고 六腑不和則留結爲癰이로다 五臟이 不平者는 六腑閉塞之致로다 心爲怔忡은 濕痰爲主로다 痰病癲狂은 補心爲主로다 肝病은 宜疎通大腸이요 大腸病은 宜平肝經이로다 脾病은 宜瀉小腸이요, 小腸은 宜潤脾經이로다

肺病은 宜清利膀胱水요 膀胱痢는 宜潤知三焦요, 三焦病은 宜調腎水로다

汗出多則傷血하고 熱勝血則生腫이로다 燥者肺金之病이요, 氣者는 精神之本이로다 風能勝濕하고 熱能液이로다 疰者는 疰也니 腹中이 堅硬에 接之應平曰疰이요

하者는 하也니 腹中이 全硬하야 聚散無常曰하요 疰者는 疰也니 在兩脇之間하야 有時動하고 積者는 積也니 挾血成形迹하야 鬱積持人久之謂也요, 聚者는 聚也니 依元氣爲端縮하야 聚散無常之謂也오 疰하현癖이 得冷則痛하나라 浮腫은 腫也니 聚脾肺寒結하고 寒熱氣之腫氣化爲水하나라 水腫之治는 法不在他也라, 補中行濕兼利小便이로다

積聚는 莫如疎泄이요 痰病은 急瀉溫熱이라

心虛手振하고 濕역成위로다 肺熱則爪枯하고 血虛則髮燥로다 魚際에 有青絡하면 胃中에 是有寒이요 渴之不通小便者는 熱在하니 上焦氣分에 宜用清肺湯이로다 不渴不通小便者는 熱在하니 下焦血分에 宜用滋腎丸이로다 關則不通小便하고 格則乃在吐逆하나라 關者는 甚熱之氣요 格者는 甚寒之氣로다 無出曰關이요, 無人曰格이로다 淋病忌於發汗이라 發汗에 必生便血이로다 內傷濕熱者는 乃生赤白濁이로다 治痢大要는 散風行滯關胃脘이 爲上이로

다. 行血則便膿이 自愈하고 調氣則後重이 自除로다

手足麻木之症은 乃是中風之侯로다 病風之症은 多屬血虛요 疝與瘕症은 通稱 角弓이로다 瘡口閉塞하면 氣不通이라. 熱極生風에 乃成치이로다. 水極似火하고 火極似水로다. 身雖煩熱이나 陰極似陽하고 身雖寒冷이나 陽極似陰이로다 引衣自覆者는 宜用四逆湯이요, 不欲近衣者는 宜用大柴胡湯이로다. 無熱惡寒者는 病發於陰地하고 發熱惡寒者는 病發於陽地이니 發於陽者는 七日愈也오. 發於陰者는 六日愈也로다. 陽微惡寒하고 陰微發熱이요 寒多則易愈하고 熱多則難愈로다.

補陰에 火自降이요, 食積은 類傷寒이로다. 傷寒後病不解하야 反惡寒者는 芍藥甘草湯 爲主로다 傷寒筋척肉순은 發汗火之所致로다 氣鬱則性滯하고 濕滯則成鬱이라 氣鬱之病은 多兼浮腫이로다 上氣不足하면 下推而揚之하고, 下氣不足하면 積而從之하니라 齒痛不忍者는 油與腫也로다 齒齲之症은 油鬱胡挑라 喉以候氣하고 咽以嚥物이로다 火者는 痰之本이요 痰者는 火之標로다 咽喉內外腫는 名爲전喉風이로다 內伏寒痰에 因成背寒이로다. 五臟者는 所以精神血氣魂魄者也오 六腑者는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라 肛門은 大腸之下口요, 水門은 小腸之下口로다 脚氣治法은 疎利導大便이로다 脚氣因病은 實水濕之所爲로다. 疝者는 寒氣經聚之所發이라 謂小腸之冲候也로다. 治疝大要는 疎利爲先이로다 掌中熱者는 腹中熱也로다 手屈不伸者는 病在節也오 手伸不屈者는 病在骨也로다 絀者는 節脈急而縮也오, 耆者는 節脈緩而伸也로다

혹익者는 手足牽引一伸一縮이요, 偏枯는 謂半身不遂者也로다 舌吐不言者는 是爲陽強也오 諸疝強直은 皆屬於濕하고 諸氣積鬱은 皆屬於肺하고 諸痰喘嘔는 皆屬於上하고 諸조狂越은 皆屬於火 하고 諸寒引受는 皆屬於腎하고 諸역因池는 皆屬於下로다 諸暴強直은 皆屬於風이로다 坦者는 坦也니 節脈緣縱이 坦然而不舉하고 坦者는 坦也니 散憊하야 踴然而不收로다. 寒熱이 往來에 陰陽이 相勝이라

善耆者는 肺氣이요 兼희者脾氣로다 直行이 爲經이요, 傍行이 爲絡이로다 勞者는 濕之하고 損者는 益之로다. 小腸胃病者는 攻邪爲主요, 先衰久病者는 補虛爲先이로다 五積者는 五臟之所生이요 六聚者는 六腑之所成이로다 脾泄者腹脹不食하고 胃泄者는 飲食不化로다 挾寒則嘔腥水하고 挾風則嘔甘水하고 挾濕則嘔酸水로다 氣虛則寒하고 血虛則熱이로다. 胃虛則惡寒하고 脾虛則發熱이로다 春不可補肝이요, 秋不可瀉肝이로다 陰火下流則或吐涎不食이로다 寒熱交作에 戰慄瀉泄이로다 兩足浮腫은 脾氣下陷이요, 胸膈脹滿은 脾氣作비로다 小便短小는 肺不能生腎이요 身腫氣喘은 脾不能生肺로다

(전남 여천군 소라면 T 83-8070)